



특집  
특급

Feature articles I

육계관련 분야별 산업 전망

# 2005년 해외 닭고기 시장 전망

## 1. 2004년을 돌아보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연스레 '전화위복' 과 '새옹지마' 라는 말이 떠오른다. 지난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이후 사상 초유의 소비 침체를 경험하면서 계육업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3월부터는 닭고기 가격이 폭등해 십수년만에 최고가격을 기록한 바 있다.

더욱이 한국의 계육교역과는 관계가 먼 덴마크의 값비싼 닭고기 날개는 물론 정육, 장각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입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8월에 미국과 브라질산이 개방된다는 소문이 귀가에 맴돌았지만, 금년 초에는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변형된 가축질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한국 또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중반 일본 방역요원의

혈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체가 발견됐다는 것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를 또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위험을 경고했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10억여 명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리고 그 중 700만여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독감은 1847년 처음 발생한 이후 1918년 스페인독감, 1957년과 1968년 홍콩독감 등 30~40년을 주기로 발생했기 때문에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2005년을 시장예측의 키워드는 "가축질병, 미국, 브라질, 덴마크"로 감히 예측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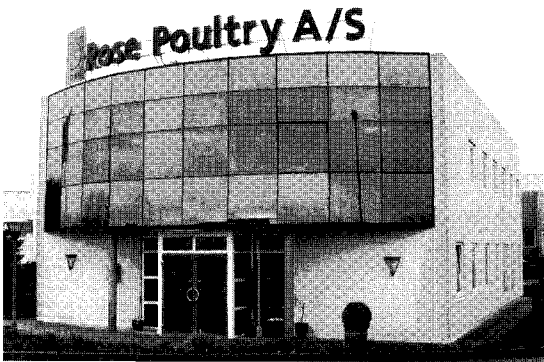
올해 11월까지 총 수입량은 약 20,000톤으로 작년대비 30% 정도에 불과하고, 수입국은 덴마크, 프랑스, 태국 등이 있지만, 절반 이상이 덴마크산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사실 통날개의 경우 말레이시아행 수출가격은 1,900불(톤당) 정도이지만, 동일한 물건이 한국행일 경우 가격은 3,300불(톤당)에 육박하고 있다. 허나 물건의 수급상 한국에서는 구입을 마다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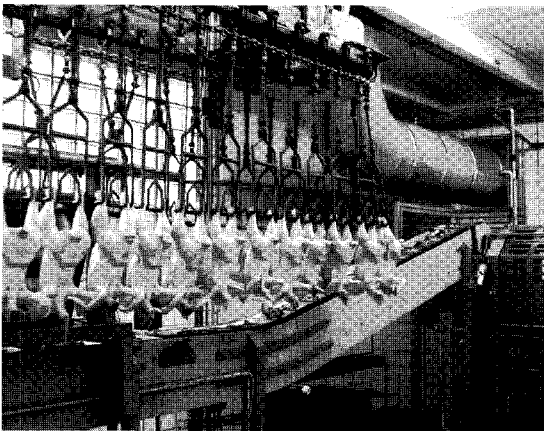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국내 닭고기 회사에서는 직접 덴마크를 방문, 수입상을 통해 물건을 직접 수입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회사의 정체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 2. 덴마크

덴마크는 'DANPO'와 'ROSE POULTRY'라는 회사가 있다. 'DANPO'의 경우 잔털과 사이즈의 범위가 너무 커서 한국스펙과 잘 맞지 않는



ROSE 본사 전경 모습



ROSE 본사 내부 전경

면이 있으나, 'ROSE POULTRY'의 경우 비교적 한국과 일치하고, 사이즈 또한 비슷해서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1월 선적분은 장각 1,900불(톤당), 통날개 3,200불(톤당)에 모두 팔린 상태이고, 2월 선적의 경우 장각은 1,900~2,000불, 통날개는 3,200~3,300불에 거래되고 있다. 국제 가격과 1,000불 이상이 차이가 나지만, 덴마크에서는 전략적으로 가격을 고정시키고 자국의 무역업체에서도 이 가격에 팔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은 “한국이 우리 닭고기를 사는 이유는 그것이 유일한 수급방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파트너십과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과 교역이 재개될 경우 그들은 모두 미국으로 달려갈 것이다.”

덴마크 수출담당자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매일 매일 미국과 한국의 협상과정을 귀담아 듣고 있으며, 덴마크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산 가금육이 교역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것 같다. 상황이 이렇다면 3월 선적가격도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이다.

## 3. 미국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수입재개에 대한 입소문들은 무성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

“쌀 협상에서 우호적인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 쇠고기와 닭고기 분야를 반대급부로 줄 것이다”

혹은 “임상용 닭이 수입되니, 자연스럽게 냉동 계육도 수입될 것이다”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워낙 민감한 사안인지라 결재단계에서 누구든지 쉽게 사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130개 국가로 닭고기를 수출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그리 매력적인 시장은 못된다. 현 시장상황에서 반감을 얻으면서까지 교역 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한국의 수입업체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듯하다.

#### 4. 브라질

2010년이 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닭고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브라질의 연간 계육생산량은 780만톤, 수출량은 192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수출 국가는 무려 122개국이다.

무엇보다 의미있는 것은 세계 축산 동향과 관계없이 그들의 계육산업은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국가들이 방역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때, 그들은 자연의 혜택과 더불어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닭고기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그들은 22개국을 그들의 신규 시장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한국의 검역단이 브라질을 방문 4개의 공장을 현장 검역한 적이 있다. 그들의 업체는 다음과 같으며, SADIA의 경우 한국의 총 생산량에 버금가는 생산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브라질산 닭고기 가공품

##### 1) 예비승인업체

###### ① SADIA S/A 社

- 수출량 : 44만톤
- 특징 : 일본지사에서 한국시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한국시장을 분석한 후 한국의 파트너 회사를 결정지은 상태임.

###### ② PERDIDO AGROINDUSTRIAL S/A 社

- 수출량 : 40만7천톤
- 특징 : 역시 일본지사에서 한국시장에서 파트너를 찾고 있음.

###### ③ SEARA ALIMENTOS S/A 社

- 수출량 : 30만7천톤
- 특징 : 싱가포르 지사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음.

###### ④ MOINHOS CRUZEIRO DO SUL S/A 社

- 수출량 : 27만톤

· 특징 : 일본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 업체들과 접촉 중에 있음.

대다수의 업체들이 한국조사를 끝마친 상태이고, 교역을 기다리며 친분을 나누고 있다. 또한 브라질의 30개 이상의 업체들이 한국수출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고 있어서 향후 양국 정부의 형상이 주목된다.

시장이 개방되면 덴마크산 수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막대한 양의 브라질산 닭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 5. 가축질병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행하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 변형 바이러스,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 등이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BSE와 부루셀라 괴질 등이 발병하는 것도 사실이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크게 사람과 돼지, 조류에 함께 유행하는 A형,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B형, 사람에게 해가 없는 C형 등 3 종류로 나뉜다. H5N1형이나 H5N2형은 C형에 속한다.

A형의 경우 철새나, 닭 등에 있던 바이러스가 돼지로 옮긴다. 인간과 세포 구조가 비슷한 돼지는 인간형 바이러스와 조류형 바이러스가 유전자 재조합을 하고, 이렇게 생성된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조차 매우 치명적이다.

WHO에서 발표하는 보고서의 예상 피해 인원

들은 최근에 발생한 수십 명의 단위가 아닌 수백 만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을 더해 주고 있다. 향후 계육업에 종사하면서 가장 주시해야 할 사항인 것 같다. 지난해 2월 우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후, 극심한 소비침체에 경악한 적이 있다.

## 6. 결론

닭고기 산업에 종사하면서 2005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는 해법이라 한다면, 아마도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역량에 맞게 보수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고, 그것이 현실에 나타날 경우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태풍이 올 때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다.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무리하지 않고 자사의 역량에 맞게 계육업에 충실하다 보면 2005년에도 뜻하지 않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C



박진호 대표  
메리트무역